

광주시, 양림동 일대 체류형 관광 활성화 나선다

‘마을투어 활성화 사업’ 추진...내일 ‘양림인디’ 첫 공연 ACC·비엔날레 연계...12월까지 공연·투어 콘텐츠 풍성

광주시가 근대역사문화 자산을 밀집한 양림동 일대를 무대로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광주시는 25일 ‘양림인디’ 첫 공연을 시작으로 ‘양림동 마을투어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와 연계한 양림동역 근대역사문화 거점 벨트 조성의 일환으로, 이달 말부터 12월 까지 이어진다. 양림동이 지난 근대 역사·문화 자원과 개성 있는 문화공간을 적극 활용해 관광객 유입을 늘리고 지역 관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전략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정기 라이브 공연

‘양림인디’ △배우와 함께하는 연극형 투어 △광주비엔날레 연계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

단순 관람을 넘어 체험과 참여를 결합한 콘텐츠로 양림동만의 차별화된 매력을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양림인디’는 양림동의 공간성을 무대로 풀어낸 정기 공연 프로그램이다. 인디 뮤지션들이 골목과 문화공간을 배경으로 소규모 라이브 공연을 펼치며, 지역 고유의 감성을 관객에게 밀도 있게 전달한다.

공연은 12월까지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약 80분간 진행되며, 회당 50여명 규모의 소형 공연으로 운영된다.

첫 공연은 25일 오후 6시 양림동 호랑가시나무아트폴리곤에서 열린다. 무대에는 인디밴드 ‘12BH(원투비하이)’가 올라 개성 있는 사운드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연은 50석 전석이 사전 매진되며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오는 9월부터는 콘텐츠의 외연을 더욱 확장한다. 연극형 투어는 배우들이 직접 등장해 양림동의 역사와 인물을 연기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기존 해설 중심 관광의 한계를 넘어서는 몰입형 콘텐츠로 기획됐다.

광주비엔날레 연계 프로그램도 주목된다. 전시 기간에 맞춰 본 전시관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양림동 일대 파빌리온을 연결하는 투어를 운영하고, 전문 도슨트 해설을 더해 관람의 깊이를 높일 계획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양림동의 근대역사 자원을 관광 브랜드로 재구성하고, ‘양림인디’를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

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승규 광주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양림동의 근대역사문화 자원을 공연과 투어 콘텐츠로 결합해 지역만의 독보적인 관광 자산으로 발전시키겠다”며 “관광객들이 양림동의 공간적·문화적·역사적 가치를 체험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라이브 공연 관련 정보는 ‘양림인디’ 인스타그램 계정(@yangrimindie)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승규 기자 photo25@gwangnam.co.kr

선거구 바뀌면 후보도 재선택 예비후보자 10일 내 신고 의무

광주시·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법 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 이내 출마할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관할 선관위에 서면 신고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는 개정법 시행일 기준으로 다음 달 2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하며, 자치구·시·군의원 예비후보자는 각 시·도의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이후 1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기존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 처리되며, 이미 납부한 기탁금은 반환된다.

선관위는 선거구 획정 조례가 늦어질 경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시·도의 회에 법 시행일 후 9일 이내 관련 조례를 의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만약 기한 내 조례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중앙선관위가 규칙으로 선거구를 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예비후보자들이 변경된 선거구 정보를 제때 확인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선거여론조사 관련 규정도 이번 개정으로 강화됐다. 그동안 별도의 신고 없이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었던 방송사, 신문사, 인터넷언론사 등도 22일부터는 선거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실시 신고를 해야 한다. 여론조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관리 범위가 확대된 조치로 해석된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전남선관위, 순천 낙안읍성서 투표참여 홍보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순천 낙안읍성에서 조선시대 수문장 복장을 입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참여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소아 야간·휴일 진료 전남 전 권역 확대 달빛어린이병원 지정·동부·중부권 야간 진료 강화

전남도가 소아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야간·휴일 진료체계를 전 권역으로 확대했다.

그동안 일부 시군에서는 소아 경증 및 응급환자가 야간이나 휴일에 진료를 받기 어려워 보호자 불편이 이어져 왔다. 전남도는 보건복지부 제도 개선 건의와 공모사업 확보, 의료기관·지역사회 협의를 병행하며 진료체계 보완에 나섰고, 권역별 인프라를 확충했다.

서부권에는 목포미즈아이병원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신규 지정해 야간 진료 공백을 보완했다. 동부권은 기존

순천 2곳, 광양 1곳에서 여수 참조은연합의원과 참조은소아청소년과의원이 추가되면서 총 5곳으로 확대됐다.

중부권은 나주 혁신도시의 엔에이치미래아동병원외 보건의료부처 외 추가 야간 진료기관 육성사업에 선정되면서 야간에도 소아 진료가 가능한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전남 전역에서 소아 야간·휴일 진료체계가 구축됐다.

전남도는 달빛어린이병원 추가 지정과 운영 확대, 지역모자요료센터(NICU) 확충, 중앙부처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소아·청소년 의료공백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

전남도, 담양서 ‘농촌 크리에이티브’ 본격화

체험·관광 결합 ‘담빛마실 노리투어’ 오늘 1차 운영 관방제림·죽녹원 연계...체류형 관광 모델 확산 기대

전남도가 체험과 관광을 결합한 체류형 농촌관광 모델을 담양에서 본격 기동한다.

전남도는 ‘2026년 농촌 크리에이티브 지원사업’을 이달 말부터 담양군에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여행전문가와 농촌관광조직, 지자체가 협력해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반영한 농촌관광 상품을 개발·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단순 방문 중심 관광에서 벗어나 농촌

에 머물며 체험과 소비를 동시에 유도하는 구조로 전환해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전남도는 지난 2월 담양군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총사업비 2억5000만원을 투입해 ‘담빛마실 노리투어’ 브랜드를 개발했다.

관방제림, 죽녹원, 소쇄원 등 지역 관광 자원과 대동방, 떡갈비 등 로컬 먹거리, 국악체현과 된장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결합해 소규모·단체 관광객 모두를

겨냥한 상품으로 구성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24일부터 1차 운영에 들어간다. 현재 서울과 부산 등 전국에서 169명이 예약을 마쳤으며, 8월까지 사전 예약 문의가 이어지는 등 수요가 확인되고 있다. 전남도는 이번 사업이 담양형 농촌관광 모델의 확산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현미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촌 체류형 관광을 통해 지역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고 소비를 유도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전남이 농촌관광 거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진실화해위 제3기 구성...위원 10명 선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 선출안이 23일 국회 통과해 제3기가 발족하게 됐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진실화해위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8명 등 국회 몫 추천위원 10명 선출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추천한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선임됐다.

비상임위원에는 민주당 추천 몫인 김영주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김경하 장애와 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정원옥 문화사회연구소 대표가 선출됐다.

김용기 세인파트너스 변호사, 이동욱 전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최창호 정론 변호사도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 비상임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현주 박종철센터장 등을 비교섭단체인 기본소득당은 박래근 인권재단 사람 이사를 각각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

진실화해위는 송상국 진실화해위원장, 김규옥 상임위원, 박구병 비상임위원과 국회 추천 위원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된다.

국회는 또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김남주 비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도 의결했다.

이성호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상속한정승인공고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 사건번호: 2026노195221 상속한정승인
○ 사망자: 양 노남규(59027-11****)
○ 제후주소: 전남 곡성군 도평읍 녹동산9길 47, 103호
○ 위 양 노남규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1032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회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간(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 공고인: 노은진(961029-21****)
○ 제정인주소: 광주 광산구 광백동로132번길 22, 203동 402호(수완동, 수완2가우체국면역센터)
○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2개월
○ 한정승인승계일: 2026년 4월 21일

2026년 4월 24일

http://in-point.kr
1%부족할 까지도 디자인 하다.

Design Specialist & Creative Think
디에스&시티

실내인테리어 디자인 · 설계 | 실내 건축 공사 | 3D 영상 · 모델링 / 조감도
육 · 내외 사인물 디자인 / 설계 | 경관 디자인 / 설계 | 산업디자인

(주)디에스시티 | 광주광역시 북구 태봉동 59 (신안동, 2층)
디에스엔시티(주) | 광주광역시 서구 공암신동로 1-1
대표전화 | 062.433.8800

kidp 산업디자인전문회사

AD, Promotion, Design, Advertisement, Solution, PR

NACOS'S

나의 소통코스
종합광고솔루션 - 나코스(주)

www.nacos.co.kr NAVER 나코스 검색

1004섬 신안 신의도 찰나를 담다!

YouTube
*구글이디어가 있으면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광남일보 iTV

구독 · 좋아요 · 알림 설정까지!!

광남일보 iTV 프로그램

- 호국과 자초의 성지, 전남 투룬산 대동사
- 나주지역 포교의 중심도량 덕률평 불허사

광고 · 시청문의 062)370-7077